

한국학: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집단전기학으로***

김만수***

〈차 례〉

1. 서론
2. 한국인: 약자의 서사에서 지혜의 서사로
3. 한국문화: 민족주의와 그 이후
4. 동아시아 한국학: 유리피언 드림에서 아시안 드림으로
5. 복수의 한국학: 집단전기학을 위하여
6. 결론: 환대를 위하여

[국문초록]

강대국들에 인접한 나라인 한국은 현실적인 힘의 약세를 상상적인 힘의 승리로 전환하는 독특한 자기서사를 전개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현실적인 힘의 약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강한 민족주의가 필요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경쟁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벗어나 전지구적 사유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최근 한국학은 한국이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동아시아 한국학의 단계로, 또한 각 나라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나름의 한국학을 사유하고 개척하는 집단전기학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집단전기학은 서로 다른 집단의 특성을 인정하고 관용과 환대의 정신을 결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출 때, 복수로서의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한국학, 집단전기학, 민족주의, 관용, 환대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제1회 동유럽한국학연구소시업 및 2021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대회(2021년 7월 15일)에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1. 서론

한국학(Korean Studies, Koreanology)은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지역학(Region Studies)과 문화학(Cultural Studies)의 방법론으로 진행된다. 본고는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서 출발하여 한국학이 어떻게 보편학문으로서의 지역학과 문화학의 일부로 수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을 보는 두 개의 관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19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는 당시의 사회 교과서 첫 대목에 실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운명에 대한 언급을 기억한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길게 매달린 반도의 형상인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늘 외세의 침략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어떤 부지런한 학자의 조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은 931회에 걸쳐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참고서에 실렸던 것도 기억난다. 한국은 오천 년 역사 동안 강대국의 침입에 시달리는 약소국, 약소민족의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한국은 단 한 차례도 외국을 침략해본 적이 없는 나라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은근과 끈기’로 이 땅의 자주적인 역사를 지켜온, 평화의 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한국은 힘없는 약소국이며,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한국은 정체된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관점이 결국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관점도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대단히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나라이며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반도국이다. 그러므로 대륙을 통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해양을 통해 태평양과 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루 갖춘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¹⁾

최근의 사회 교과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그 자체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루 갖춘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들을 옆에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대단히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강대국이 옆에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관점, 특히 인구 14억의 중국, 1.25억의 일본이 인접해 있다는 점은 무역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매달린 긴 반도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국을 좌우로 끼고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기회의 땅이 된 것이다.

2. 한국인: 약자의 서사에서 지혜의 서사로

한국인의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옥에서 매 맞기’를 다룬 재미있는 농담을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죄를 많이 지은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3인이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서 곤장을 맞게 된다. 염라대왕께서는 곤장을 때리되 한 사람 당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크게 안도한 미국인은 곤장을 맞을 때 엉덩이 위에 방석을 올려놓아 주십사 부탁한다. 엉덩이에 방석을 올려놓았으니 조금 덜 아팠을 것이다. 다음 차례는 일본인. 그들은 응용에 뛰어나다. 일본인은 방석을 두 장 올려놓아 달라고 부탁한다. 아마 미국인보다 훨씬 덜 아팠을 것이다. 마지막 차례는 한국인. 한국인은 염라대왕에게 영똥한 부탁을 한다. 자기 엉덩이 위에 저 일본인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요즘에는 잘 통하지 않는 ‘썰렁한’ 농담이지만, 이 농담에는 ‘한국인의 독

1) 김영순 외, 『중학교 사회(2)』, 동아출판, 2018, 204쪽.

특한 서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강자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결코 질 수 없다는 강인한 저항과 오기의 정신이 그것이다. 현실에서는 졌지만, 적어도 이야기 속에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오기. 이러한 한국인의 오기는 강대국을 향할 때 강렬하게 작동하는데, 특히 일본을 대할 때 더욱 강렬해진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일제 강점기 이후 강화되었지만, 그 이전의 임진왜란 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자 미상의 군담소설 <임진록>은 사명당, 이순신, 서산대사 등의 활약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일본까지 쳐들어가 도술로써 일본 왕의 항복을 받고 개선한다는 이야기인데, 위축된 민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가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명대사는 도술로 일본을 혼내준 다음, 전쟁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귀국하는데, 아무런 무력도 갖추지 못한 스님에 불과한 사명대사의 정신적 승리는 이처럼 웅변적으로 '나약한 자의 승리'라는 한국인의 서사축을 대변한다.²⁾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남이 장군 등 유독 삶을 실패로 마감한 불우한 영웅들을 신주로 모시는 한국 무당들의 사례에도 실패한 영웅에 대한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바,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 원형을 말할 때 먼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민담에서의 '지혜 동물(wisdom animals)'이다. 예를 들어 쥐, 토끼, 여우는 약한 동물들이지만, 지혜의 힘을 빌려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 여우의 피와 속임수는 이솝 우화에 전형적으로 제시되고, 쥐의 지혜는 달리기 경주에 나선 열두 동물 중에서 1등을 차지한다는 12지 동물에 관한 동아시아의 민담에서 잘 드러나는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이러한 지혜동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러한 사례는 『삼국사기』의 열전 김유신 편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당시의 강대국인 고구려와 당나라와 교섭하면서 지혜와 인내의 힘을 발휘한다. 김춘추는 협상을 위해 고구려를 찾아갔지만, 외교적 성

2) 김용태, 『조선 후기 사명대사 인식의 생성과 대중적 확산』, 『동아시아불교문화』 36집, 2018.12, 314~317쪽.

과는커녕 옥에 갇히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고지식한 김춘추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뇌물을 받은 고구려 관리 선도해의 귀뜸으로 ‘토끼의 피’에 대해 듣고 크게 깨닫게 되는데, 결국 김춘추는 고구려에 거저 약속을 한 다음 탈출에 성공한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김유신의 활약 부분이다. 김유신은 당나라의 황제와 장수 소정방 등의 무리한 요구를 참아가며 때로는 복종하는 척하고 때로는 속여가면서 삼국통일의 위업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간다.³⁾ 가장 국력이 약했던 신라는 김춘추, 김유신 등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 성공에 이른 반면, 고구려와 백제는 권력욕과 자만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는 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가장 약한 자의 승리’라는 민담의 구조, 민중의 소망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서사는 주변 강대국에 직접적으로 대적하기보다는 지혜와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극복하는 방식의 서사로 연결되는데, 한국형 괴물퇴치 설화인 ‘지네장터’에 이러한 성향이 전형적으로 반영된 듯하다. 이부영은 한국인의 서사가 능동적으로 괴물과 맞서 이를 물리치는 페르세우스형 영웅담과는 달리, 사랑과 지혜와 상생의 힘으로 괴물을 물리치는 유형, 즉 ‘지네장터’형의 민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부영은 ‘페르세우스 형 영웅’ 이야기의 한국적 변형에 해당하는 ‘지네장터’ 설화에서 괴물(지네)을 물리치는 것은 남성형의 전사가 아니라 착하고 어린 효녀가 먹이를 쥐서 키운 두꺼비라는 점을 상기 시킨다. 어린 여주인공은 지네를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정성껏 밥을 주어 기른 두꺼비의 도움을 빌려 지네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⁴⁾

한국인의 심성은 약자의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복잡적이며, 그 바탕에는 저항과 오기, 사랑과 지혜 등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흔히 한국인의 근원적인 정서로 알려진 ‘한’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슬픔, 분노의 과정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해한’의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천이

3) 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II』, 한길사, 1998, 753~756쪽.

4) 이부영,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1995, 114~115쪽.

두의 관점에서도 잘 나타난다.⁵⁾

3. 한국문화: 민족주의와 그 이후

1) 민족주의의 에너지: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단계

필자는 한국소설에 반영된 미국/미국인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미국/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변화를 다룬 바 있다.⁶⁾ 로스토우(w.w. Rostow)의 경제발전 단계 이론을 적용하자면, 한국사회 또한 ‘전통시대→과도가→도약→성숙→고도 대량소비’의 단계를 거치는데, 특히 ‘도약(take off)’ 단계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양되고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와 비판의 감정이 고양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흥미로웠다.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점차 반미문화의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민족주의의 최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제적 ‘도약’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과 ‘고도 대량소비’의 단계로 진입했음에도 아직 민족주의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위의 논문에서 박완서의 단편소설 『공항에서 만난 사람』(1978)을 예로 들어, “끓주린 동포의 설움을 분풀이”하는 무대소 이준마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열등감이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는 장면을 인용한 바 있다. 무대소 이준마는 “곧 죽어도 머리칼 노란 사람보고는 양놈, 일본 사람보고는 왜놈, 중국 사람보고는 떠놈이라고 알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터무니없이 오만한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⁷⁾인데, 그녀의 남편은 무능한 “미국놈”이다.

5)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67쪽.

6) 김만수, 『한국소설에 나타난 미국의 이미지』,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2008. 참조.

7)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문학동네, 1999, 330쪽.

내가 나 먹자고 이 짓 하는 줄 아느냐. 미국놈 먹여 살릴려고 이 짓 한다. 네놈들은 우리 삼천만이 다 네놈들 덕 본 걸로 알지만 한국사람 덕으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미국놈도 있단 말이야. 내가 바로 미국놈 먹여살리는 한국인이고 내 남편은 그 미국놈이다.⁸⁾

이 작품에서 ‘무대소 이즘마’는 가난한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생존하고 있다는 점을 수긍한다.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고, 때로는 한국인이 미국인을 먹여 살리기도 한다는 점을 자존심의 근거로 내세운다. 미국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의 비참함과 치욕감이 새로운 도약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이 소설은 1970년대 한국인이 가졌을 법한 민족주의적 감정의 전형을 잘 드러낸다.

이는 미국 MIT의 경제학자 로스토우가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제시한 ‘도약(take off)’에 대한 설명과 맞아떨어지는데, 그는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도약’ 단계에서 민족의 수치심에 대한 기억들이 강력한 민족주의의 에너지로 승화되는 과정을 주목한다.

선진제국으로부터의 침입에 반발하는 반발적 민족주의는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동기의 하나였으며 … (중략)… 선진 강대국의 침략에 의하여 인간과 국가의 존엄성이 모욕을 받지 않았다면, 지난 1세기 반에 걸친 전통적 사회의 근대화 속도는 의심할 나위도 없이 현실의 그것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⁹⁾.

“선진 강대국의 침략에 의하여 인간과 국가의 존엄성이 모욕을 받지 않았다면”에 주목해보자. 자기 민족이 외부로부터 모욕 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로스토우의 생각은 한국의 경제발

8) 위의 책, 345쪽.

9) W.W.로스토우, 김명운 역, 『경제성장의 제단계』, 장문각, 1971, 52쪽.

전이 가난의 수치심과 모욕감, 그리고 강력한 민족주의의 성장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과 놀랍게도 일치한다. 민족주의는 상당히 배타적인 감정이며, 어찌 보면 열등의식에 근원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도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열등감을 직면하는 순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완서의 소설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은 수많은 작품들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미국인을 혼내는 한국 이줌마의 등장만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작품이다.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오기와 자존심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2) 한국문화의 힘과 가능성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새뮤얼 P. 헌팅턴의 편저 『문화가 중요하다』의 서문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문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1990년대 초 나는 가나와 한국의 1960년대 초반 경제 자료들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60년대 당시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비슷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양국의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으며 1차 제품(농산품), 2차 제품(공산품), 서비스의 경제 점유 분포도 비슷했다. 특히 농산품의 경제 점유율이 아주 유사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만들어내는 2차 제품이 별로 없었다. 게다가 양국은 상당한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다. 30년 뒤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산업 강국으로 발전했다. 우수한 다국적 기업을 거느리고 자동차, 전자 장비, 고도로 기술집약적인 2차제품 등을 수출하는 나라로 부상했다. …(중략)… 반면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가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나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5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엄청난 발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내가 볼 때 ‘문화’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¹⁰⁾

10) 새뮤얼 P. 헌팅턴, 로렌스 E. 해리스 공편, 이종인 역,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2001, 8~9쪽.

최근에는 헌팅턴 외에도 많은 미래학자들과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이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한국의 발전 배경으로 교육과 문화의 힘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며 주입식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기도 하지만, 한국인이 교육을 통해 성취한 ‘문화’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어쩌면 한국문화는 한국인의 가난과 수치심, 열등감에 근원을 두면서 특유의 근면성, 전통적인 가치관, 위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삶의 의지 등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우리는 그 문화적 잠재력을 최근의 ‘한류 현상’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한국대중문화의 비약적 발전은 아예 한류(韓流)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인 Hallyu, 혹은 Korean Wave, K-culture 등의 용어를 유행시켰고, 한국적인 문화 현상들 각자에 K-Pop, K-드라마, K-방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유행시켰다. 한류는 이제 K-Pop은 물론 영화, 드라마, 한식, 게임, 출판, 패션, 뷰티,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는 학술논문에도 이러한 유행이 영향을 미쳐 ‘한류’라는 이름이 포함된 논문, 보고서가 8,387건에 이를 정도이다.¹²⁾ 한류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석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다음 몇 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유례없이 높은 한국의 교육열이 이러한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기술은 물론 미술, 음악,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교육수준이 결국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의 산실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한국 내 수용층의 ‘입맛’이 까다롭고 이들의 활동이 매우 참여적이어서, 전체적인 수준이 높은 것도 좋은 콘텐츠 제작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이러한 성공이 개인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부의 장기적인 개입, 전문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형성 등 구조적인 변

11) 김만수, 『한류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우리 안의 타자, 동아시아』, 글로벌콘텐츠, 2011, 202쪽.

12) [https://academic.naver.com/한류\(2021.6.6\)](https://academic.naver.com/한류(2021.6.6))

회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거론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 뉴미디어로 새롭게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체제(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빼뜨려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두터운 중산층이 탄생되어 서구 부르주아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화를 동시에 향유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젊은 문화가 생성 중이며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러한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이민·비즈니스·여행에 의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증가하였고, 이 와중에서 국가 단위를 넘어선, 초국가적인 문화 왕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IT 강국인 한국의 과학기술적인 기반도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본다.¹³⁾

어쨌든 최근 10년 이내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은 어느 새 GDP규모에서 세계 12위 전후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문화적인 역량 면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언어사용인구도 남북한과 해외 교포 등을 합하면 8천만을 상회하여 세계 11~14위권의 언어이자, 세계 인구의 1퍼센트가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로 여겨지는, 1인당 GN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30~50 클럽'에 속하게 된 점도 최근에 추가된 자랑거리이다. 이러한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는 G7 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랭킹에 해당하는 위치이며, 한국을 포함한 이들 12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가장 작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 캐나다 다음으로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인 동시에, G7도 BRICS도 아닌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13) 김만수, 앞의 글, 211~222쪽.

3) 한국문화의 한계와 위험성

물론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국은 경쟁이 심한 위험사회이며, 안보 환경 인권 복지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국문화의 급속한 부상에 내재한 한계와 위험성을 잊어서도 안 된다. 한류의 급속한 발전은 불과 30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한류의 쇠퇴도 그 정도의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류의 성공을 ‘한국적인 것’의 승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나라나 지역의 문화 산업이 한류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해도, 이것이 곧 한국문화에 의한 지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실제로 많은 해외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제작한 미디어 상품이며, 시청자들은 지배문화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저항’한다. 스투어트 홀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 보이는 순응적 측면과 저항적 요소를 동시에 개념화한다.¹⁴⁾ 우리는 동아시아 각국에 일고 있는 한류 현상을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 향하는 일방적인 전파’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도 큰 착각이다. 그들은 한국문화를 소비하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그 문화를 자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문화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한국문화가 배타적인 문화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도시에 창조계급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리처드 플로리다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¹⁵⁾ 그는 ‘관용’을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14) 임영호 편역, 『스투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21쪽.

15) 리처드 플로리다, 이원호 외 역,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8, 58쪽.

모든 민족, 인종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양성으로 정의하는데, 특히 기술력 있는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민자, 예술가, 게이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창조적인 에너지들을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상기시킨다. 그에 의하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두터운 노동 시장, 일생의 반려자를 찾을 수 있는 결혼 시장, 의미 있는 우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어메니티(amenity)의 제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3T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역시 관용(Tolerance)으로 보인다. 관용을 갖춘 도시에 멋진 재능과 창조적인 기술을 갖춘 인력이 모인다는 그의 설명은 도시 차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제적 교류의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관용을 가진 국가에만 인재(talent)와 기술(technology)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도 한국이 스스로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해 관용의 열린 시각을 갖출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동아시아 한국학: 유티피언 드림에서 아시안 드림으로

1) 자유와 관용을 위하여: 네덜란드 모델

이제 자국학으로서의 한국학도 민족/국가 중심의 사유를 넘어 자유와 관용에 대한 사유를 더할 필요가 있다. 내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자유도 소중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용의 태도를 함께 갖추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5년 전쯤 인하대의 BK, HK사업 보고서 작성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때 내건 아젠다는 결국 ‘동아시아 한국학’으로 모아졌는데, 이

때 필자가 벤치마킹한 것은 네덜란드 모델이었다. 북해에 인접한 습지와 낮은 기온의 네덜란드는 자연환경이 척박하여 “세계는 신이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창조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이지만, 특유의 관용(tolerance)과 열린 시각으로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는데, 당시의 안트베르펜(지금은 벨기에 영토)과 암스테르담 중심의 네덜란드연합은 이러한 시각으로 당시의 강대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비아와 리스본을 물리치고 그 중심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⁶⁾ 프랑스와 스페인은 제국적 침탈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종교적 대립 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가 외부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의 나라’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부를 축적한 이들 ‘위그노’를 대거 유입할 수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유럽 금융과 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관용의 태도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지금도 네덜란드의 총인구는 2천만 명 이하이지만, 이들의 절반이 해외에 머물면서 네덜란드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지도를 펼쳐놓고 네덜란드를 보면, 위치가 프랑스, 독일, 영국의 중심에 네덜란드가 놓여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태평양을 원으로 그릴 때 그 원주의 일부에 해당하는 한반도는 현재 G2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하나의 접점인 동시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맹주를 자처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실로 세계 4대 강국이 만나는 자리라고 과장해도 될만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문화가 만나는 곳이며, 따라서 가장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이 높은 곳일 수 있다. 네덜란드가 유럽의 허브가 된다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허브는 물류(logistics) 분야의 허브인 동시에, 문류(문화교류) 분야의 허브를 의미한다.

허브(hub)는 이상하게도 중심이 비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심을 비

16)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갈라파고스, 2012, 111~121쪽.

움으로써 중력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구조적 힘을 얻는 허브의 특성은 강대국의 힘이 긴장 상태로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생각된다. 이제 경쟁과 승리보다 공존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유러피안 드림에서 아시안 드림으로

로스투우가 설정한 ‘도약의 시점만을 본다면, 일본이 가장 앞섰고 중국이 가장 늦은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개최 연도를 기준으로 ‘도약에서 ‘성숙’ 단계로 가는 지표를 대신한다면, 도쿄(1964), 서울(1988), 베이징(2008)을 떠올려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글이 50년 전에 로스투우가 제시한 낮은 경제발전 단계의 이론으로 한중일의 경제발전 단계를 판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중일은 이미 ‘도약의 단계를 훌쩍 넘어서서 ‘성숙’과 ‘고도소비사회’의 길목에 선 이 시점에서 ‘도약’의 근본 에너지인,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타민족에 대한 경쟁심과 증오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나라는 과거 청산 문제, 국경 문제는 물론 김치, 한복의 원조 논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문제들에서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경쟁을 넘어선 공존의 시각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개발 위주 정책과는 다른 유럽의 이상을 소개한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유러피안 드림』에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경쟁과 약탈을 통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 소통과 공존을 통해서 생존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¹⁷⁾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태로 1992년 경제통합으로서의 EU, 현재는 리스본조약을 거쳐 경제통합의 단계를 넘어선 정치통합 단계의 EU라는 공동체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17) 제러미 리프킨, 이원기 역, 『유러피안 드림』, 민음사, 2005, 24~26쪽.

필자는 1970년대의 한국이, 마치 박완서의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러했듯, 오기와 자존심,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에 고착되어 있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유러피안 드림』을 통해 제시한 평화와 공존의 사상에 좀더 다가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 드림’이 개인의 근로윤리, 청교도주의, 애국주의로 중무장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신화로 구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지향해야 할 ‘유러피안 드림’은 이러한 경쟁과 배타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킨 후에 마침내 유럽이 도달한 지혜라는 것이다.

더 이상 경쟁과 약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지나치게 ‘나’를 내세워서 안 된다는 것, ‘민족’이라는 관념을 초월하지는 것-이런 믿음이야말로 현재 EU의 정신이며, 제러미 리프킨이 제시한 유럽과 세계의 희망인 바, 필자는 그의 개념인 ‘유러피안 드림’을 ‘아시안 드림’, 혹은 ‘동아시아의 드림’으로 대체해보고자 한다. 이제 동아시아 각국도 유럽 통합의 정신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얻고 이를 실천할 때가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주축을 이루는 한중일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중화 혹은 대동아공영권 같은 제국주의적 신화 대신 각국의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아시안 드림’의 가능성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5. 복수의 한국학: 집단전기학을 위하여

1) 단수로서의 한국학에서 벗어나기

20세기 들어,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민과 여행 등의 인적인 이동, 전쟁과 무역 등의 물질적 이동, 책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 집단의 이동은 디아스포라를 낳기도 했는데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Joseph Conrad, 1857~1924)의 일생은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콘래드는 러시아 베르디지우(현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하였지만, 국적은 폴란드인으로 본명 또한 폴란드 방식인 Josef Teodor Konrad Korzeniowski였다. 그는 독립투사이자 문필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폴란드어로 교육받았으며, 16세에 프랑스로 가서 4년 동안 선원 생활을 하다가, 1896년 영국에 귀화하고 영국식 이름인 Joseph Conrad로 개명한다. 이후 그는 작가가 되어 <어둠의 핵심(Heart of Darkness)>을 발표하는데, 이 소설은 아프리카 콩고강의 상류에 가서 벨기에 회사의 주재원으로 고용되어 상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커츠를 데리고 나오는 증기선 선장 말로의 모험담을 통해 제국주의의 위선과 잔학상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이 소설은 미국의 영화감독 프란시스 코폴라의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배경을 아프리카의 콩고강에서 베트남의 밀림으로 옮긴 상태로 각색된다.¹⁸⁾ 우리는 콘래드의 일생과 그의 작품에서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영국, 벨기에, 콩고, 미국, 베트남 등의 흔적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콘래드의 하이브리드적인 일생이 그다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시간과 공간의 이동은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러한 이동의 궤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한국인/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을 배타적으로 자랑하기만 하고 보편적인 표준화에 게을리할 때, 한국은 이른바 ‘갈라파고스 증후군(Galapagos Syndrome)’에 빠질 수도 있다. 갈라파고스는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안정적인 생태계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 결과 경쟁에서 배제되어 종 다양성이 부족한, 기이한 형태의 생태계로 전락하였다. 예를 들어,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생각이 강박화된다면 영어로 대표되는 보

18) https://ko.wikipedia.org/wiki/조지프_콘래드(2021.05.21)

편 기호체계로부터 자칫 고립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학은 그간 여러 형태로 지속되어왔다. 한국학의 기본성격을 범주화하자면, 첫째 ‘자국학’으로서의 한국학, 둘째 ‘식민학’으로서의 한국학, 셋째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 넷째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¹⁹⁾ 이 중에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식민학’도 있고, 비서구지역의 지배와 관리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학’의 전통을 이어 받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위에서 예거한 네 유형의 한국학은 국가 단위와 민족 단위의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라는 긍정적인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민족-국가와의 차이, 배제 등을 강조한 ‘자국학’과 ‘민족학’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 차원, 혹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공통점과 보편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차원의 ‘한국학’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 “동아시아 한국학”을 키워드로 BK사업과 HK사업에 연이어 선정된 후, 이를 15년간 수행한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이때 아젠다로 내건 『동아시아 한국학 교육, 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2006~2012), 『동아시아 상생과 소통의 한국학』(2008~2017)은 2019년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의 한국학이 동아시아의 범주에서, 그리고 해외 전체의 차원에서 소통되어야 한다는 당위였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아젠다에는 ‘집단전기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2) 집단전기학의 특징과 사례

집단전기학(prosopography)은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개념이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prosopon(person), graaphein(description)의 합성어이며, “개

1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동아시아한국학의 형성: 근대성과 식민성의 착종』, 소명출판, 2013, 8쪽.

인을 기술한다”는 뜻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 집단의 모습, 행동, 외적인 특질을 기술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집단전기학은 일단 개인전기(biography)와 유사한 방법에서 출발하지만, 특정한 개인보다 개인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 전반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엄연한 차별점을 가진다.²⁰⁾

‘집단전기학’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단 한 건의 국내 학술논문도 검색되지 않으며 서양사학자 나중일이 30년 전에 아날학파를 소개하는 글의 일부분으로 이를 소개한 것만 겨우 검색된다. 나중일에 의하면, 집단전기학이란 원래 개인들의 약전(略傳)을 밝혀내어 이를 나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원래 어떤 관직이나 칭호, 직업이나 학력 등을 나타내는 각종 명단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가문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일, 또는 이러한 명단이나 가계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전기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일이었다.²¹⁾

이러한 연구동향은 연구대상이 되는 집단을 하나의 우주(a universe)로 설정한 다음, 출생과 결혼, 죽음, 가족, 사회적 신분, 상속받은 경제적 위치, 거주 장소, 교육, 개인 재산, 종교, 회사 경력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답변들을 병치시키고 결합하여 의미 있는 요소를 추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현대사 연구자들에게는 집단전기(collective biography), 사회과학자들에게는 다중 경력라인 분석(multiple career-line analysis), 고대사 연구자들에게는 집단전기학(prosopography)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집단전기학은 점차 집단의 전기 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계 및 활동의 패턴을 연구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는데, 집단전기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네이미어(Sir Lewis Namier)는 18세기 영국 하원의원들의 역사적 기록을 모아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내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주된 관심은 개인이 취하는 정치적 행동의 근원을 파악하는 일, 그들이 취하는 사회적 구조와 변동성에 대한 관찰 등이었다. 예컨대 집단전기학은 독일 나치즘처럼 폐쇄적이고 집중적인 집단의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

20) Rajae Ankoud, “Prosopography: An Approach to Studying Elites and Social Groups”, *Almuntaqa*, 2020, pp.70~71.

21) 나중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비평사, 1993, 322쪽.

들은 정치적 엘리트나 혁명 지도자들의 패턴과 행동을 유의미하게 분석하는 그룹과 대중들의 취향과 동향을 분석하는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의 그룹은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의 관계를 읽어낸 막스 베버 식의 이념형(Weberian ideal-types)을 기술하려고 했다.²²⁾

나종일의 논의를 따라가며 아날학과와 페르낭 브로델의 역사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함께 읽으면 집단전기학의 실체가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가장 큰 특징은 이들 논의가 기본적으로 아날 학파의 계승이며, 심층사 연구에서 출발하여 경제사 연구를 거쳐 문화적 전회(cultural turn)에 이르기까지의 아날 학파가 거치는 경로를 그대로 따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집단전기학이 다루는 연구대상이 브로델의 용어인 ‘장기 지속’이나 ‘공중꺾뿔르(conjoncture)’ 중 어디에 속할지는 단정짓기 힘들지만, 적어도 ‘단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한 개인의 역사보다는 더 길고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어떤 경향을 다루는 것은 분명하다.

그 연구대상은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월러스틴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그 내부에서 찾지 않고 전체적인 중심부와 주변부의 개념으로 환원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계급적 시각, 제3세계의 종속이론, 페르낭 브로델의 ‘장기 지속’의 개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집단전기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전기학은 결국 하나의 집단이 어느 시공간과 계급적 위치에서 사유하고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산화된 자료의 활용가능성이다. 나종일은 위의 글에서 1990년대 이후 발달한 컴퓨팅의 테크놀로지, 특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다. 최근 Ngram Viewer를 통한 통계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활용하는 기본 전제가 바로 집단전기학이 아닌가 싶다. Ngram Viewer에서는 몇 개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어느 시기에

22) Lawrence Stone, “Prosopography”, *Didalus*, Vol 100, Mit Press, 1971, pp.47~79.

누가 이러한 키워드에 집중하였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Korea/China/Japan’을 검색해보면 영어권에서 이들 세 나라가 어느 시기에 더 활발하게 언급되었는지, 그 경향을 읽어낼 수 있고 여기에 개입된 여러 집단들의 움직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프랑코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는 개인 단위를 넘어선 문학적 개념의 변화가 30년 정도의 ‘장기 지속’ 형태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한 바 있는데,²³⁾ 이러한 ‘멀리서 읽기’의 방법론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여러 집단들의 연구성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곧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집단전기학으로서의 한국학: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단전기학의 전형적인 사례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정종현의 『제국대학의 조센징』(휴머니스트, 2019)과 첸강 외, 『유미유동(留美幼童)』(이정선 김승룡 역, 시너북스, 2005)이었다. 전자는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의 제국대학, 특히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을 거친 졸업생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잡는가를 분석하고 있으며, 후자는 청말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120명 아동의 이후 활동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일단 역사적 자료가 풍부해야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시각(심성사, 계급적 시각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의 집단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공동체 집단을 만들어간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민사, 이주사, 디아스포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당한 분량의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도 집단전기학의 한 부류로 편입시킬 수 있을 듯하다.

더 주목할 부분은 한국학과 관련된 집단전기학이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연변학의 선구자들』(소명출판, 2013), 『연변조선족의 역사와 현실』(소명출판, 2013)은 중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한국문화의 민족적 정체

23) 프랑코 모레티, 『그래프, 나무, 지도』, 문학동네, 2020 참조.

성을 탐구한 기록인데, 우리가 향후 다루고자 하는 '집단전기학으로서의 한국학'의 한 전범으로 삼을만하다. 특히 『연변학의 선구자들』은 중국공산당의 건국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인문사회계 교수집단, 문인과 예술가들의 계보를 그리고 있어 집단전기학이 갖추어야 할 "자체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집단전기학으로서의 한국학은 '한국'이라는 키워드 외에 한국을 연구하는 어떤 '집단의 전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영어영문학과는 영미를 위해 존립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 존립하는 것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영어영문학과'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전기학으로서의 한국학'은 한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집단적 성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와 경제적 성장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세종학당 등)을 다니기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금선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민족교육의 한 방식으로 수행된 국어교육의 역사를 정리한 바 있는데,²⁴⁾ 이제는 해외교포 수준을 넘어선 한국어 교육 붐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관찰과 역사적 조망도 점차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들이 '장기 지속'으로서의 한국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문화연구로서의 한국학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연구대상, 연구방법론, 연구 자체의 역사이다. 문화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 존 스토리는 그의 저서 『문화란 무엇인가』의 첫 구절을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시작한다.

‘문화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중략)… 전

24) 윤금선, 『우리말 우리글 디아스포라의 언어-근대 해외 한인의 국어교육사』, 월인, 2017.

통적으로 학문분야는 세 개의 기준으로 규정된다고 하겠다. 첫째, 연구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가정들이 있어야 하며, 셋째, 학문 분야 자체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²⁵⁾

모든 학문은 연구대상, 연구방법론과 함께 “학문 자체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존 스토리의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물론 한국학의 연구대상은 한국, 한국어, 한국인, 한국문화이다. 또한 한국학 연구의 기본전제는 한국어 세계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나머지 하나의 문제, 즉 “학문 자체의 역사”를 강조해야 하는데, 이는 왜 한국학을 공부하는가, 한국학을 공부하는 우리 집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지속해왔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적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이다. 하나의 집단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교류해온 모든 기록들은 끊임없이 축적되며 그 자체의 역사를 이루고 전통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막연하지만, 이러한 “자체의 역사”를 존중해야만 집단전기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6. 결론: 환대를 위하여

‘집단지성’의 개념을 제시하여 위키피디아의 이념적 모형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피에르 레비는 그의 저서 『집단지성』의 첫 부분을 타락으로 점철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한 의인(義人)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도시를 파괴하기로 결심한 여호와 앞에서 족장은 신과 엄청난 흥정을 벌인다. 그 결과 신은 이 도시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도시의 의인은 롯과 그의 아내뿐이었다.

성서의 이 대목을 찬찬히 읽어보면, 신이 제시한 게임의 방법이 특이하다. 신은 두 천사를 보낸다, 두 천사는 낮선 여행자로 보일 뿐 신의 사자라는 사

25) John Storey ed., *What is Cultural Studies?*, Arnold, 1966, p.1.

실은 감추어져 있다. 룯은 손님에 대한 환대의 규칙에 따라 이들을 대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룯의 집에 몰려들어 이방인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이방인들을 “육보이려” 함이다. 룯은 이들의 협박을 거부하면서 심지어 분노한 군중들에게 손님 대신 자기의 딸들을 내어줄 것을 제의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분노한 군중들은 룯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를 통해 소돔에는 더 이상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에 대한 피에르 레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소돔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환대의 거부이다. 소돔 사람들은 이방인을 환대하기는커녕 육보이려고 했다. …(중략)… 환대는 여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한다. 환대를 통해 떨어져 사는 지역이 다르고 낯선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고 동화되고 포함된다. 환대는 개인을 집단에 연결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추방에 정확히 반대된다. 의인(義人)은 포함시키고, 편입시키고, 사회 조직을 수선한다.²⁶⁾

“의인(義人)은 포함시키고, 편입시키고, 사회 조직을 수선한다”는 문장에 주목해보자. 의인은 배타적인 감정을 버리고 외부를 포용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난다. 너와 나의 관계를 선택과 배제(A OR B)의 관계에서 벗어나 포용과 새로운 탄생(A AND B)의 관계로 이끌기 때문이다. 피에르 레비는 나와 외부의 이방인을 묶을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았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10명의 의인보다 훨씬 많은 의인들이 더 넓고 좋은 세계를 향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의 의로운 생각들이 창조적인 ‘집단지성’의 준거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한국학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질문해야 한다. 이방인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천사일 수 있다는 믿음, 이방인을 환대할 수 있는 집단이 오히려 구원받을 수

26) 피에르 레비, 김수경 역, 『집단지성-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2, 50쪽.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날 것, 우리 집단이 한국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이 글의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 참고문헌

- 김영순 외, 『중학교 사회(2)』, 동아출판, 2018.
- 김용태, 『조선 후기 사명대사 인식의 생성과 대중적 확산』, 『동아시아불교문화』 36집, 2018.12.
- 김만수, 『한국소설에 나타난 미국의 이미지』,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2008.
- 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Ⅱ』, 한길사, 1998.
- 나종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비평사, 1993.
-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문학동네, 1999.
- 윤금선, <우리말 우리글 디아스포라의 언어-근대 해외 한인의 국어교육사>, 월인, 2017.
- 이부영,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1995.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연변학의 선구자들』, 소명출판, 2013.
- _____, 『연변조선족의 역사와 현실』, 소명출판, 2013.
- _____, 『우리 안의 타자, 동아시아』, 글로벌콘텐츠, 2011.
- _____, 『동아시아한국학의 형성: 근대성과 식민성의 착종』, 소명출판, 2013.
-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 정중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 리처드 플로리다, 이원호 외 역,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8.
- 새뮤얼 P. 헌팅턴, 로렌스 E. 해리스 공편, 이종인 역,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2001.
- 제러미 리프킨, 이원기 역,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 2005.
- 존 스토리, 백선기 역,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첸강 외, 이정선 김승룡 역, 『유미유동(留美幼童)』, 시니북스, 2005.
-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갈라파고스, 2012.
- 프랑코 모레티, 『그래프, 나무, 지도』, 문학동네, 2020.
- 피에르 레비, 김수경 역, 『집단지성-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2.
- W.W.로스투우, 김명윤 역, 『경제성장의 제단계』, 장문각, 1971.
- John Storey ed., *What is Cultural Studies?*, Arnold, 1966,
- Lawrence Stone, "Prosopography", *Didalos*, Mit Press, Vol 100. 1971, (<https://www.jstor.org/stable/20023990>)
- Rajae Ankoud, "Prosopography: An Approach to Studying Elites and Social Groups", *Almuntaqa*, 2020, (<https://www.jstor.org/stable/10.31430/almuntaqa.3.1.0070>)
- [https://academic.naver.com/한류\(2021.6.6\)](https://academic.naver.com/한류(2021.6.6))
- [https://ko.wikipedia.org/wiki/조지프_콘라드\(2021.05.21.\)](https://ko.wikipedia.org/wiki/조지프_콘라드(2021.05.21.))

Koreanology: East Asian's perspective to Prosopography

Mansu Kim*

Korea is a country that does not have a history of aggressive empires. Koreans have invented the unique narratives that transformed their realistic weakness into a victory of fictitious world. Strong nationalism was needed for Koreans who wanted to overcome the weakness of realistic power. Nationalism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Recently, Korea has reached a high level of economic and cultural maturity. Now, it is necessary to get out of the nationalistic sentiment based on Korean competition. Recently, Koreanology have gone out narrow nationalism and advanced to the level of East Asian Koreanology. Nowadays Koreanology is also developing into prosopography that think and pioneer their own Korean studies in each country. Prosopograph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s a plurality, when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groups and accepting them in the spirit of tolerance and hospitality.

Key words: Koreanology, Prosopography, nationalism, tolerance, hospitality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29일 ||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16일

* INHA UNIVERSITY